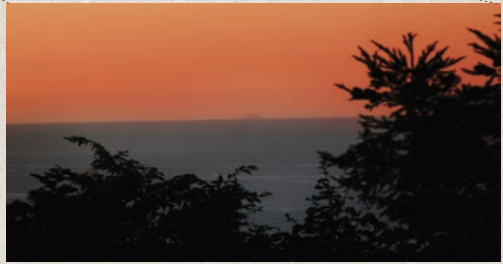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익령도에서
바라본 독도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우리와 삶을 함께한 우리의 땅, 독도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개의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

6세기 이전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울릉도 사람들에게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들에서 놀다가도 보고, 밭에서 일하다가 보고, 산에서 나무하다가도 볼 수 있는 게 독도다. 독도는 외로운 섬도 방치된 땅도 아닌 우리와 삶을 같이 한 우리의 땅이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그 의미는?

- ▶ 일본정부는 가와카미 겐조 등 관변학자들을 앞세워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부정하며, 그 근거중 하나로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 ▶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에서 확실하게 보인다.
두 섬의 거리는 87.4km로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씨가 맑은 날, 특히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시간에는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
- ▶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것은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여겼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울릉도(도동 깎끼등)에서 바라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울릉도(도동시내 배경)에서 바라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울릉도(석포마을)에서 바라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울릉도(저동 내수전)에서 바라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독도(동도에서 서도를 배경)에서 바라본 울릉도



..
DOKDO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DOKDO VOLUNTEER FORCES COMMEMORATION FOUNDATION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 801호 (150-870)
전화 : 02-783-1956/7 팩스 : 02-783-1958 홈페이지 : www.dokdofoundation.or.kr